초등 5학년 독후활동지 (학생용)

개을 읽고 생기을 넓혀요



장진호에서 온 아이

글 이규희 | 그림 백대승

스푼북



장진호에서 온아이

· 글: 이규희 · 그림: 백대승 · 출판사: 스푼북 · 정가: 12,000원 · 분량: 152쪽 대상: 초등 고학년

· 교과 연계: 국어 5-1 가 4. 작품에 대한 생각

국어 5-2 가 1, 문학이 주는 감동



장진호는 한때 아이들의 웃음꽃이 가득한 놀이터였어요. 남과 북으로 갈린 전쟁이 벌어지자 이곳도 군인들의 발자국으로 뒤덮이지요. 각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들은 군으로 끌려가고, 아이들마저도 편 이 나뉘었어요.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편과 싫어하는 편으로요. 주인공 강우네 가족도 뿔뿔이 헤어 져 고향을 떠납니다. 손과 발, 볼이 추위에 갈라지는 줄도 모르고 모두가 피난길에 올랐던 그 시절. 소년이 바라본 6.25 전쟁의 민낯은 과연 어떠했을까요?





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ਆ 책 미리 보기: 표지

-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, 글귀, 그림을 살펴봅시다.
- 1 《장진호에서 온 아이》의 앞표지와 제목을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을 써 보세요.



장진호에서 온 아이

번호	앞표지와 제목을 보면서 드는 생각
1	
2	
3	



• (2~3) 《장진호에서 온 아이》의 뒤표지에 쓰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6·25 전쟁 70주년 기념 역사 동화 《장진호에서 온 아이》

여름이면 장진호에서 수영을 하고, 겨울이면 썰매를 타던 해맑은 소년 강우. 하루아침에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쓸리며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…….

전쟁의 처연한 흔적 속에서 상처 입은 존재들을 향한 섬세하고 부드러운 위로가 1950년의 그때 그 소년 소녀들, 그리고 지금의 어린이들을 찾아갑니다.

2	강우에게 '장진호'는 어떤 장소였을까요?
3	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, 강우가 겪게 될 이야기를 예상해 보세요.



•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[18쪽] "지금 집집마다 학생들이 수령님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집 큰아들은 왜 아직까지 지원 안 하오? 강식이 어디 있소?"

김인배는 서슬이 퍼런 얼굴로 물었다. 다행히 형이 친구들과 공부를 한다며 집을 비웠을 때였다.

"강식이 지금 집에 없소."

아버지는 침착하게 말했다.

"진짜요? 그렇채두 이 집은 반동분자 집안이라구 인민 위원회에서 주시하고 있으이까 거짓 말하다가 걸리면 몽땅 살아남지 못할 거 각오하시오. 며칠 시간 줄 테이까 그 안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게요."

[20쪽] 밤이 되자 형은 마지못해 어두컴컴한 움막으로 들어갔다. 조그만 호롱 하나 들고서. 그곳은 어른 두어 명이 들어가 누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. 통나무 기둥을 세우고 판자를 엮어 벽을 만들고 공기구멍까지 뚫어 놓아 은신처로는 그만이었다. 일제 강점기 때 할아버지가 징용을 피하기 위해 숨어 있던 곳이라고 하였다. 움막 입구에도 가마니를 덮고 나뭇가지를 얹어 감쪽같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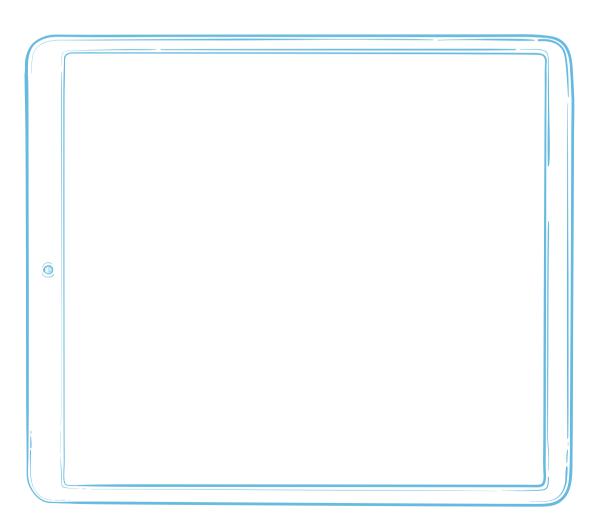
"형님아, 이것도 가져가라."

	강우네 아버지가 강식이를 지키기 위해 생각해 낸 방법은 무엇인가요?
4	2 움막에 숨는 형에게 강우가 전해 준 것은 무엇일까요?



• 이 글을 참고하여 나만의 시레이션 박스를 그려 보세요.

[34쪽] 아버지는 미군들의 전투 식량인 시레이션 박스도 가지고 왔다. 시레이션 앞에는 번호 가 붙어 있고 무슨 음식이 들어 있는지 설명이 적혀 있었는데, 그야말로 별 게 별 게 다 들어 있었다. 물만 부으면 되는 소고기 스튜부터 닭고기, 초콜릿, 사탕, 과자 등 다양했다. 지난번 에 초콜릿 맛을 본 강우는 그 달콤하고 느끼한 음식들이 마냥 신기했다.





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💎 인상 깊은 내용을 생각하며 책 읽기

• 《장진호에서 온 아이》의 일부입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써 보세요.

[42~43쪽] "이 바보야! 주, 중공군이 인민군대 도와주러 왔다잖니. 지금 조선에 들어와 있 단 말이다. 미군이 남조선 도와줄라 여기 와 있는 것처럼. 우리 아부지 산 타구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또 유담리 쪽에 미군 군대가 진 치고 있더란다. 아무래도 중공 군대가 미국 군대 공격하자구 숨어 있는 거 같단다."

"그러면, 어, 어쩌니?"

강우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된 듯 멍해졌다. 하갈우리에 있던 미군들 중 일부가 장진호 왼쪽 덕동산 자락으로 올라가는 걸 보았기 때문이었다.

"나두 모르겠다. 우리 아부지 그러는데 온 산을 하얗게 덮을 정도로 중공군 숫자가 많았단다. 미국 군대가 아무리 신식 무기랑 대포 가지고 있어두 못 당해 낼 거란다. 어쩌니? 나는 우리 모태가 빨갱이 모태 되는 게 싫다. 우리 엄마 고향이 경상도라고 맨날 반동분자 취급하 재야. 진짜 싫다."

길수는 시무룩한 얼굴로 말했다.

"가자. 가서 어른들한테 알려 주자. 빨리."

"아이 된다. 우리 아부지 이런 소문 퍼뜨린 거 알면 공산당이 가만두지 않을 거랬다. 너무 놀래서 니한테만 가만히 알려 주는 거다. 그니까 니도 탄로 내면 아이 된다. 알았지?"

L	라리	면	,																				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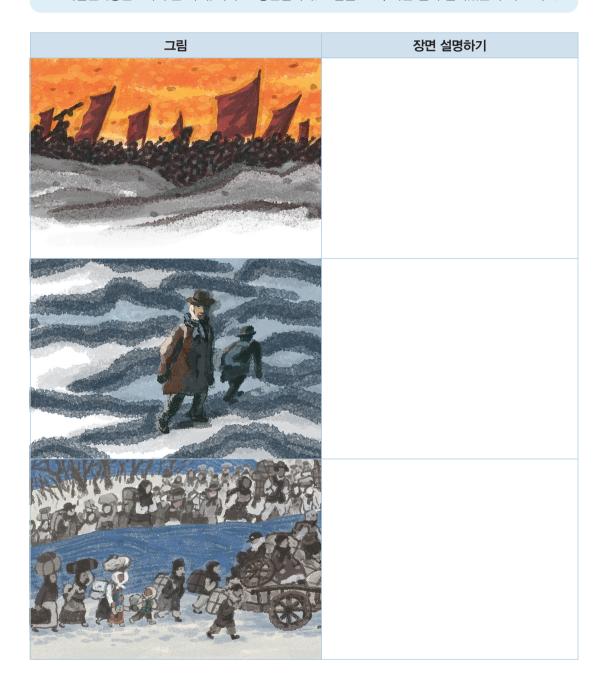
• 그림에서 피난 가는 강우와 강희, 엄마를 찾아보세요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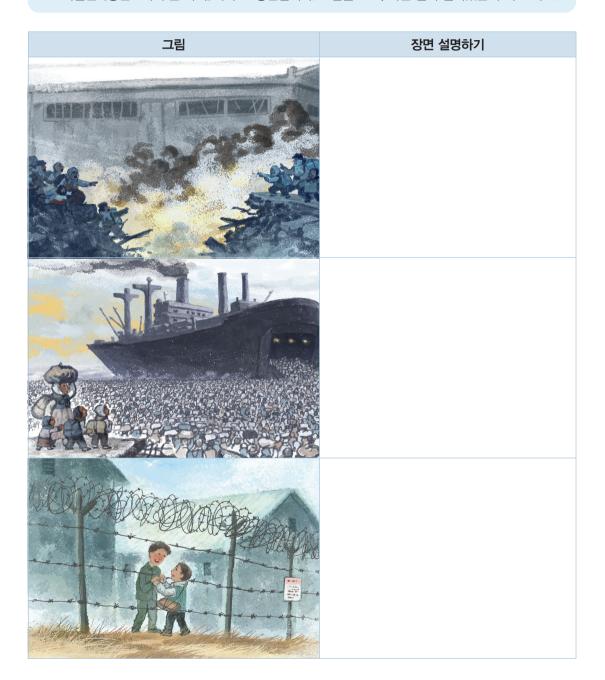


• 다음은 《장진호에서 온 아이》의 주요 장면입니다. 그림을 보고,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써 보세요.





• 다음은 《장진호에서 온 아이》의 주요 장면입니다. 그림을 보고,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써 보세요.





• 《장진호에서 온 아이》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.

1	강우가 살던 마을 이름은 무엇인가요?
2	강우가 타고 온 배 이름은 무엇인가요?
3	배에 피란민을 태워야 한다고 설득한 사람은 누구인가요?
4	'이쪽도 저쪽도 저렇게 군인들이 죽어 나가는데 도대체 왜 전쟁을 하는 걸까?' 강우는 이
	전쟁이 왜 일어났는지, 누구 때문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. 그저 두려움에 떨며 피난을 갔을뿐이죠. 여러분은 전쟁을 왜 한다고 생각하나요?

